

##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9 “우리도 뛴다”

# “국민 건강 증진 최우선 회사 명예 걸고 달리죠”

### ■ 남양유업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남양유업의 명예를 걸고 깊은과 폐기 그리고 도전을 위해 달린다.”

활기찬 생활과 긍정적인 사고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남양유업마라톤클럽이 제43회 3·1절 광주일보 전국 마라톤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남양유업마라톤클럽은 지난 2001년 10월 취미생활을 위해 40여명의 직원이 모여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달리는 것을 좋아하고 마라톤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 현재

는 25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사내 최대 규모의 클럽으로 성장했다.

한 해 25개가 넘는 대회에 출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는 첫 출전이다. 게다가 나주·천안 등에서 손님들을 초대해 우리 지역 유수의 마라톤 대회를 뛰게 됐다”며

“함께 땀을 흘리고 전라도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광주의 활력적인 문화를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하프 코스에 출전하는 김 회장은 지금까지 100여차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16번의 풀코스를 소화한 베테랑이다.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천안에서 내려오는 임효근(45)씨는 “나주공장의 초대로 대회에 참가해 하프코스를 뛰게 됐다”며 “나주 공장의 무궁한 발전



천안·광주·나주의 ‘남양유업마라톤클럽’의 회원들이 3·1절 전국마라톤을 위해 광주를 찾아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남양유업마라톤클럽 제공〉

과 우리 클럽 회원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주 등 4개 공장서 50명 참가**

회원들은 함께 호흡을 맞춰 달리기를 하면서 건강 관리는 물론 직장 분위기도 한껏 좋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건강이 바탕이 되면서 업무 능력도 향상되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남양유업마라톤클럽은 회원간의 끈끈한 정민름이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도전정신’도 뛰어나다. 3시간10초로 클럽 내 최고 기록을 보유한 정광진(47)씨는 ‘도전정신’으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선배(43) 천안신공장 클럽 회장도 4회 풀코스의 경험을 살려 ‘기록보다는 걷기’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지성-이영표

오늘 맞대결?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이영표(31·토트넘)가 맞대결을 벌이고 나란히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맨유와 토트넘은 2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토트넘의 홈 구장인 화이트하트레인에서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국내 팬들의 관심은 당연히 박지성과 이영표의 잉글랜드 무대 네 번째 맞대결 성사 여부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2월5일 마지막으로 같은 그라운드에 섰던 박지성과 이영표는 이후 박지성의 부상 여파 등으로 네 번째 대결이 계속 미뤄졌고, 지난달 FA컵 32강전을 통해 맞대결이 예상됐지만 박지성이 결장하면서 또 다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박지성과 이영표가 펼치

는 ‘태극전사 대결’을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지성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통산 50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출전했던 박지성은 28일 FA컵에 결장한 뒤 31일에 90분을 소화한 터라 선발 로테이션에 따라 쉬거나 교체 출전할 공산이 크다.

반면 이영표는 지난달 28일 맨유와 FA컵에 출전한 이후 주중 경기를 쉬면서 숨을 돌린 터라 이번 주말 맨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축구 해외파 주말 출전 일정(한국시간)

▲박지성-이영표 : 맨유-토트넘(2일 밤 12시) ▲설기현 : 풀럼-애스턴 빌라(4일 새벽 1시·홈) ▲이동국 미들즈브러-뉴캐슬(3일 오후 10시30분·원정) ▲이천수 : 페예노르트-아약스(3일 오후 8시30분·원정)

### 축구대표 김두현 웨스트브롬 입단



극전사가 된다.

김두현은 일단 2일 귀국해 오는 6일 투르크메니스탄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첫 경기를 앞둔 허정무호에 합류한다.

월드컵 예선을 뛰고 나면 곧장 축국해 웨스트브롬 전열에 가세한다.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김두현(26·사진)이 잉글랜드 축구 협회 언십(2부리그) 웨스트브로미치 앨비언(WBA·이하 웨스트브롬) 입단을 확정했다.

전 소속팀 성남 일화는 지난달 29일 메디컬 테스트와 취업허가서(워크퍼밋) 발급 절차를 위해 출국한 김두현이 영국 현지에서 입단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웨스트브롬은 15승6무8패(승점 51)로 힘

피언십 1위를 달리고 있어 다음 2008-2009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이 유력하다.

웨스트브롬이 프리미어리그로 올라가면 김두현은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토트넘), 설기현(풀럼), 이동국(미들즈브러)에 이어 다섯 번째 프리미어리그 테

다.

2군이 만들어지면 현재 외국인 선수까지 15명인 프로농구 선수단 규모가 20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대졸 신인 영입 등 선수단 수급에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KBL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시즌에 프로농구 10개 팀별로 2군을 만들 뒤 2군 리그는 3~4년 후에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추가 부담이 없지 않겠지만 구단들도 원활한 선수 수급에 필요한 2군 창설을 원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 프로농구 2군 생긴다 빠르면 2008~2009 시즌부터

빠르면 2008-2009 시즌부터 프로야구, 프로축구에 이어 프로농구에도 2군이 생긴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일 각팀 1군 국내 선수를 현재의 13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대신 2군을 8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을 5월이나 6월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



“이대로 날고 싶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데어 벨리에서 열린 ‘비자 프리스타일 국제스키대회’에 출전한 벨로루시의 안톤 쿠스니르 선수가 경기에 대비, 연습을 하고 있다.

### 워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석



미국 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2·피츠버그 스틸러스·사진)가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내한한다.

워드의 한국 매니저먼트를 맡고 있는 쿠토털매니지먼트인터내셔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워드가 22일부터 27일까지 5박6일간 방한하고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워드는 2006년 방한 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던 인연이 있다.

골프·콘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b>록펠러 회원권</b>	
골프장	시세(평당)
광주	3,500
남광주	4,400
글펠900	6,400
총	1,700
클럽	1,900
도로양	2,100
성남 문의 (062)351-0095	

/연합뉴스